

한글의 국제표준화와 세계화

중국의 한글공정에 적극 대응하고 한글의 세계화 주도해야 할 시점

글_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중국은 한글입력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려는 소위 '한글공정'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지성으로 한글자판의 국가표준을 만들었지만 중국의 한글공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중국에서 사용하는 조선어는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언어이며,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중국 특한 간 언어의 어질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한글의 통일과 표준화에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화에 앞장설 시점이다. <편집자>





한글날과 한글공정

10월 9일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공식 언어 한글이 만들어진 날이다. 한글날을 맞아서 기술표준이 아닌 사회표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사회표준은 일종의 제도로서 공식적(Formal) 혹은 비공식적(Informal)으로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데, 언어는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표준어 규정의 제1장 총칙 제1항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한글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중국이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국에 편입시키기 위해 시행 중인 이른바 동북아 역사의 '중국 중심화' 작업을 말한다.

조선족(朝鮮族)이 길림(吉林, 지린), 연변(延邊, 연변)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적 원천을 중국 문명의 뿌리 중 하나라고 규정함으로써,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속국으로 취급되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만주를 누볐던 자랑스러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모두 중국사가 되고 만다.

모든 나라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에 한술 더 떠서 한글공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동북공정만큼 알려져 있지 않다. 동북공정에 의하여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 역시 중국어에 배속되었다. 여기에는 중국의 엄청난 상업적 계산이 깔려 있다.

관련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3년 전 한글공정을 위해서 '조선어국가표준위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휴대형 기기는 물론이고 PC 키보드용 조선어 입력 표준과 소스코드, 지역식별자 등 4가지 표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중국 정부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북한과 한국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을 만들기로 하고 국제 협력까지 제안한 상황이다. 자국 내 수많은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표준을 정립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에서 10명의 연구사를 지원받기까지 하여 작업에 착수하였다.

중국은 자국 내 휴대폰과 PC 등의 조선어 입력방식을 표준화해 ISO 국제표준으로 상정할 계획을 진행 중이다. 중국의 조선어 입력 표준이 ISO에 상정될 경우, 한국과 한글 입력 표준을 두고 마찰도 예상된다.

〈전자신문〉은 조선어국가표준위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조선어정보학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제사회에서 한글에 대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조선어정보학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한국과 북한의 의견을 청취해 조선어 표준 입력 방식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한글과 관련한 PC 및 모바일 기기 자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으로 중국이 먼저 조선어 입력 방식을 표준화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글에 대한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는 말로 우려를 표했다.

만약 중국의 이런 시도가 국제표준이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이 만든 표준에 따라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야 할 상황이 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식에 국내에서는 관련 업계의 비난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전국적 자성의 결과 2011년 스마트폰의 한글 자판은 천지인과 나랏글, 스카이 등으로 복수표준이 지정되었다(일반 휴대폰은 천지인을 표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과거 한글자판의 방식이 기기에 따라 달라 대한민국의 휴대폰을 쓰는 사람은 상당한 불편함을 경험했을 것이다. 제조업체마다 다른 자판방식이 특화되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휴대폰용 한글자판 표준화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휴대폰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사 방식의 자판을 표준으로 하기를 원해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던 것이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관련 기업이 특허를 개방하고 한

글코드의 국가표준을 만든 것은 정말이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글의 세계화

문화의 세계 진출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언어임을 고려해보면 한글자판과 같은 인프라의 정비로 한글의 세계적 보급은 더욱 가속화될 터이다. 사실 한글의 세계화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한 콘텐츠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글로벌 히트를 치게 된 데에는 유튜브가 혁혁한 공헌을 하지 않았던가.

프랑스의 알리안스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 영국의 브리티시카운실(British Council), 중국의 공자학당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세종학당을 출범시켜 한국어 교재의 표준화 및 한국어 강사 인력 양성에 나



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글의 세계적 보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한글의 세계화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제도 마련에 집중되어 있으나 정작 한글의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한글은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중국(조선족의 언어로서)이 쓰는 언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중국의 한글공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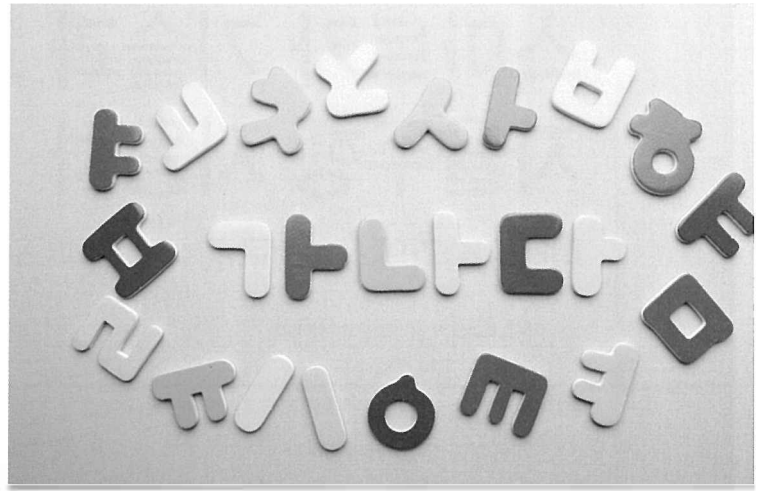
중국의 한글공정이 오로지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중 정부가 인정한 공식 언어는 한어(일명 만다린), 조선어, 몽골어, 티베트어 그리고 위구르어로서 5개 언어뿐이다. 8천만 명이 넘게 쓰는 광둥어도 공식적인 중국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중국 내 한글의 위상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한글의 사용법상 표준화가 필요함에 따라 한국과 북한 양국에 한글 표준을 학회를 통해 요청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이미 파견하여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13년 현재, 한국-중국-북한 간 언어의 이질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에서 쓰는 조선어)-북한 간의 언어적 차이보다 사회문화 교류가 훨씬 적은 한국-북한 간의 언어 차이가 당연히 더 이질적일 것이다. 해방 이후 일본어와 영어의 혼재 속에서 (최근 온라인 언어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한국어는 조선어나 북한어와 거리가 계속 멀어졌다.

북한 역시 중국어를 직접 번역해서 쓰다 보니 언어의 이질성이 가속화된 상태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쓰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용어는 중국어에서 빙차림(冰淇淋,



빙기림)으로 불리고 북한은 이를 번역한 ‘얼음꽃보숭이’라고 하고 있다.

한국어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남북한 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시도해왔으나 양국 간 이해관계와 관점이 다른 까닭에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강력한 제3자로 등장함에 따라 여태까지 남북한 양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온 많은 이슈들이 실제로는 다자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글자판의 표준 문제처럼 최악의 상황에는 중국이 한글을 조선어로서 자국의 편의에 따라 표준화시키고 남북한에게 통보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먼저 조선어를 표준화한다는 말은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가 만다린 다음으로 많고, 한국어과를 개설한 대학이 200여 곳이나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어의 교재 및 한국어의 운용 방식을 떠나서 한국어의 표준이 길림·연변 지역의 언어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글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글날을 맞아 남북한 모두 한글의 통일과 표준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로 기원해본다. **T&S**

※ 참고문헌

- 첨단 IT 기기 한글 입력 표준, 중국에 빼앗길 위기, ETNews(2010, 10, 11)
- 중국 '한글 빼앗기' 나섰나 - 국제표준 제정 착수, 한겨레신문(2010, 10, 11)
- 한글 세계화 연구의 질박성, 선진사회만들기연대(2013, 9, 3)